

제주감귤수출진흥전략에 관한 연구¹⁾

Export Strategies for Jeju Mandarin

고 경 표*

(Koh, Kyung-Pyo)

목 차

- I. 서론
- II. 제주지역농업의 실태
- III. 제주감귤생산과 수출현황
- IV. 제주감귤수출진흥전략
- V. 결론

I. 서 론

제주지역에서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우렁찬 고동이 울렸다. 4년여의 산고를 치르면서 기대와 우려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세계화의 물결 속으로 제주는 이미 깊숙이 스며들면서 제주감귤농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감귤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제주농정당국의 노심초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제주경제미래를 불안케 하고 있다. 감귤적정생산량 약 52만톤 추정치가 적절하다면 2001년도 생산량 65만톤 중 과잉생산량 약 13톤을 해외수요 등에 충당할 수 있다면 농가의 시름은 덜 수 있지 않을까? 그 동안 적정생산 유지를 위해 투입한 인적 물적 자원과 기회비용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1)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연구교수 연구지원계획에 의거 연구되었다.

을 제주감귤의 해외수요창출에 투자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주감귤의 국내수요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농정당국을 비롯한 감귤관련단체 등은 가격유지를 위한 감귤생산조정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귤가격은 여전히 불안하고 감귤농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전략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감귤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근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 동안 감귤정책은 총생산조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공산품의 생산조정도 제반 여건상 난감한 것인데 자연의 산물인 감귤의 가격유지를 위한 생산조정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감귤따기, 휴식년제, 감귤원 폐원 등 감귤감산정책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면서도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생산조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자본주의 경제란 근원적으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인 바 생산은 생산자의 몫이며 소비는 소비자의 몫이다. 소비자는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감귤 생산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도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구되어진다. 소비자가 생산자의 의사결정까지 간섭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특히 중국농산물의 출현과 감귤대체작물의 열악한 현실에서 감산 일변도의 감귤정책은 제주농가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감귤감산정책을 통한 가격 유지도 중요하지만 가격유지를 위한 감귤수요창출 전략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더욱이 감귤농가정보력이 증대된 현실에서 관주도적 감귤생산조정정책은 한계성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 업적주의를 심화시켜 농정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

세계경제는 본격적인 WTO시대로 접어들어 21세기는 경쟁적인 글로벌 소비자시대이다. 글로벌 소비자시대는 어떠한 상품이든 세계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산물 등 모든 상품은 품질과 가격이 글로벌 소비자의 매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냉혹한 흐름에서 제주감귤의 생존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적극 접근하여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감귤생산인 것이다. 저렴하고 고품질의 감귤 생산에 주력하고 감귤수요증진을 전방위적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주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약 20억의 인구는 제주감귤의 잠재적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 잠재적 해외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감귤수출정책이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 농산물시장의 개방화의 흐름에 따라 감귤의 국내수요량이 40-50만 톤 정도라고 산정해 볼 때 과잉생산량 20-30만톤은 해외시장이나 다른 수요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생산독점인 제주감귤 총 생산량의 겨우 1%정도 해외 수출될 뿐이다.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외지향적 경제개발 전략을 감귤발전에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제주지역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감귤은 생명산업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논문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제주감귤의 해외수요 창출을 위한 제주감귤수출진흥전략을 거시적 측면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제주지역농업의 실태를 논술하고, 둘째 제주감귤의 생산과 수출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며, 셋째 제주감귤의 수출진흥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각종 문헌과 학술논문을 참고하고 제주도 등 감귤관련기관의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II. 제주지역농업의 실태

2.1 제주지역농업의 실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높은 편이며, 그 가운데 제주지역은 감귤농업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제주지역은 지난 40여년간 감귤농업과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 제조업 등 2차산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인 바 농업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농업비중 변화 추이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제주농업의 특징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1차산업의 비중은 2000년도 4%를 나타내어 1990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선진국형 산업체제로 변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농림업의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0년도 전남, 전북이 13.5-14.5%수준이고, 강원과 충북이 10%미만이지만 제주지역은 22.4%를 나타내어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도 제주의 산업구조 가운데 1차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의미하며 다른 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업의 비중이 감소한 데 반해, 제주지역은 공업화 진전이 미미해 농업이 중추적인 산업기반을 유지해오고 있다.²⁾

(표 1) 전국 도별 농림업 생산액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0
전국	13.3	8.0	6.2	5.0	4.0
경기도	4.5	2.5	3.8	2.7	2.2
강원도	20.6	12.4	10.6	9.7	8.6
충청북도	23.6	14.9	10.9	8.7	7.8
충청남도	26.4	15.6	18.0	15.5	12.5
전라북도	28.1	21.1	16.8	15.3	13.5
전라남도	28.0	17.4	20.9	16.2	14.5
경상북도	19.8	12.5	15.1	10.5	9.0
경상남도	10.4	6.3	6.8	9.2	7.2
제주도	41.2	32.5	31.0	25.7	22.4

자료 : 통계청 (2001)

2) 유영봉, “제주농업의 특성변화와 발전방향”, 「제주농업의 미래」 농업과학 심포지엄 자료, 2001. pp. 60~61.

제주지역의 농가 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39,822가구로 1995년 이후 농가절대수 면서에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인 바, 이는 2000년 현재 제주지역 총가구의 22%이나 농가인구는 1995년 이후 약 년 1.5% 감소하여 2000년 현재 129,187명으로 총인구의 24%의 비중을 차지하여 제주지역 주민의 4분의 1은 농민이라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있어서 농업은 산업생산면에서나 인구비중면에서 절대적임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제주지역의 농가정책은 제주지역경제의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제주지역 농가·농업인구 현황

(단위 : 가구, 명)

연도별	구분	가구			인구		
		총가구	농가구	%	총인구	농가인구	%
1995		157,314	39,781	25	519,394	145,579	28
1996		161,211	39,485	24	523,736	142,320	27
1997		165,653	40,224	24	528,360	135,194	26
1998		170,338	39,822	23	534,715	133,352	25
1999		173,612	40,329	23	539,493	136,208	25
2000		177,600	39,105	22	543,323	129,187	24
제주시		90,562	7,436	8	279,087	27,961	10
서귀포시		27,787	7,277	26	85,737	25,075	29
북제주군		33,898	12,999	38	100,395	40,465	40
남제주군		25,353	11,393	45	78,104	35,686	46

자료 : 제주도 (2001)

2.2 제주지역의 경지면적과 GRDP 성장률

제주지역의 경지면적은 (표 3)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 말 현재 5만9,207ha에 이르러 1995년 이후 증가되어 농가구당 경지면적도 증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는 제주지역의 탈농업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표 4)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제주지역 총생산(GRDP)의 연평균 성장률은 3.8%인 반면, 농림어업은 4.0%로 개방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편이다. 전국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동안 GRDP 연평균 성장률이 5.2%인 반면, 농림어업은 2.0%로 제주지역의 농림어업이 전국에 비해서도 적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3) 한국은행 제주지점, "WTO체제하의 제주농업 발전방안", 2001. 11. pp. 24.

(표 3) 제주지역 경지면적 현황

연도별	구분	경지면적(ha)			농가구당 경지면적(ha)		
		계	논	밭	계	논	밭
1995		56,829	206	56,623	142.8	0.5	142.3
1996		56,315	205	56,110	142.6	0.5	142.1
1997		56,517	205	56,312	146.1	0.5	145.6
1998		56,812	205	56,607	142.7	0.5	142.2
1999		58,707	195	58,512	145.6	0.5	145.1
2000		59,207	195	59,012	151.4	0.5	150.9
	제주시	6,154	-	6,154	82.8	-	82.8
	서귀포시	7,254	25	7,229	99.7	0.3	99.3
	북제주군	24,620	121	24,499	189.4	0.9	188.5
	남제주군	21,179	49	21,130	185.9	0.4	185.5

자료 : 제주도 농업특작과(2001)

(표 4) GRDP·농림어업부문의 성장을 비교 (단위 : %)

구분		1986~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전국	총생산	9.0	7.4	8.3	4.9	-7.4	12.9
	농림어업	1.0	4.7	1.9	0.8	-3.6	6.1
	농림어업비중	8.9	6.4	5.9	5.3	5.2	5.3
제주	총생산	7.6	5.6	5.6	7.4	-9.7	9.9
	농림어업	4.5	13.2	-9.1	7.2	-6.4	15.3
	농림어업비중	34.1	31.0	24.8	24.1	25.3	25.7

주 : 1) 기간중 평균 2) 불변가격 기준 3) 경상가격 표준

자료 : 한국은행 제주지점, WTO체제하의 제주농업 발전방안(2001)

한편 WTO 출범 전인 1986~1994년의 제주지역 총GRDP와 농림어업 GRDP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7.6% 및 4.5%인 점으로 볼 때에도 아직은 시장개방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총생산의 농림어업의 비중은 1995년 이전에는 평균 34.1%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후 전국의 비중과 같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인당 부가가치면에서도 1999년 제주지역 농림어업이 1,479만원으로서 전국보다 619만원이 많고 1989~1994년 평균에 비해 2.1배로서 산업 전체(1.9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농림어업부문 1인당 부가가치는 총생산 1인당 부가가치의 90%에 육박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측면에서도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표 5참조).

(표 5) 1인당 부가가치 비교

(단위 : 만원, %)

구 분		1989~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전 국	총생산(A)	1,204 (12.6)	1,751 (12.3)	1,915 (9.4)	2,048 (6.9)	2,124 (3.7)	2,320 (9.2)
	농림어업(B)	564 (11.8)	903 (21.8)	968 (7.2)	969 (0.1)	889 (-8.2)	1,060 (19.2)
	B/A	46.8	51.6	50.5	47.3	41.9	45.7
제 주	총생산(A)	960 (14.3)	1,509 (15.6)	1,587 (5.2)	1,685 (6.2)	1,676 (-0.5)	1,871 (11.6)
	농림어업(B)	800 (17.6)	1,507 (33.7)	1,311 (-13.0)	1,399 (6.7)	1,390 (-0.7)	1,679 (20.9)
	B/A	82.6	99.9	82.6	83.0	82.9	89.8

주 : 1) 기간 중 평균 2) ()내는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제주지점, WTO체제하의 제주농업 발전방안(2001)

제주지역의 농가 평균소득은 1995~1996년 기간동안 크게 증가했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는 시장개방 이전의 2,217만원보다 다소 높은 2,473만원을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농업부문에서만 발생한 농업소득은 시장개방 이전의 1,300만원 수준에서 2000년에는 1,188만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 농업소득의 축소는 농업의 조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농업 경영비가 1994년의 782만원에서 2000년에는 1,178만원으로 50%가까이 부담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농가소득의 감소는 농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하여 2000년 말 현재 2,943만원으로 1995~2000년 기간에 비해 약 3배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2,021만원)보다 약 45% 높은 상태이며, 부채 증가율 역시 크게 증대되어 제주농촌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제주 농가경제 주요 지표

(단위 : 만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가평균소득(1=2+3+4)	2,113	2,217	2,722	2,990	2,238	2,596	2,224	2,473
농업소득(2)	1,387	1,375	1,774	1,836	1,194	1,240	1,032	1,188
	농업조수익	2,004	2,157	2,664	2,859	2,398	2,212	2,366
	농업경영비	617	782	890	1,023	1,024	1,122	1,18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외소득(3)	543 (25.7)	645 (30.5)	751 (27.6)	801 (26.8)	827 (34.5)	997 (38.4)	808 (36.3)	873 (35.3)
겸업소득	96	130	136	153	123	178	261	241
사업이외소득	447	515	642	648	704	819	547	632
이전수입(4)	183	197	197	353	217	360	384	413
농가자산	-	27,886	28,652	26,105	22,475	24,127
농가부채 (전국농가부채)	855 (916)	1,163 (1,173)	1,298 (1,301)	1,869 (1,701)	2,572 (1,854)	2,934 (2,021)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2001)

2.3 제주지역 작물재배 실태

제주지역 주요 농작물을 살펴보면(표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감귤, 콩, 감자, 맥주맥, 마늘, 당근, 참깨, 유채, 양배추, 고구마, 양파, 화훼로서 대부분 밭작물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귤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이들 작물의 지난 10년간 재배면적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감귤의 재배면적은 2000년 현재 25,796ha로서 1990년보다 33% 증가하였으며, 감자, 마늘, 당근, 양파, 화훼의 면적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맥주맥, 참깨, 유채, 고구마 등은 재배면적이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농산물 개방의 흐름,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자와 양파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된 것은 중산간 지역의 잡종지 등을 개간하여 감자농사를 대규모로 영농하는 농가의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지만 제주지역의 청정이미지와 육지부 지역의 작황불황에 의한 제주농산물의 국내수요가 증가가 주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지역의 주요 작물 재배실태를 재배면적기준으로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두류·서류 등의 식량작물은 재배면적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용작물·맥류·잡곡 등의 작물은 축소되는 추세이고 반면 과수·채소·화훼 등의 작물은 재배면적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훼는 1990년 이후 정부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화훼 시설의 현대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고품질의 화훼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화훼의 재배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마늘·양파·당근은 1995년 이후부터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의 조수익의 변동추이를 보면 (표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감귤의 조수익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다른 발작물에 비하여 높은 농가소득원이며 이러한 감귤의 조수익은 해마다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다(그림 1 참조).

(표 7) 제주지역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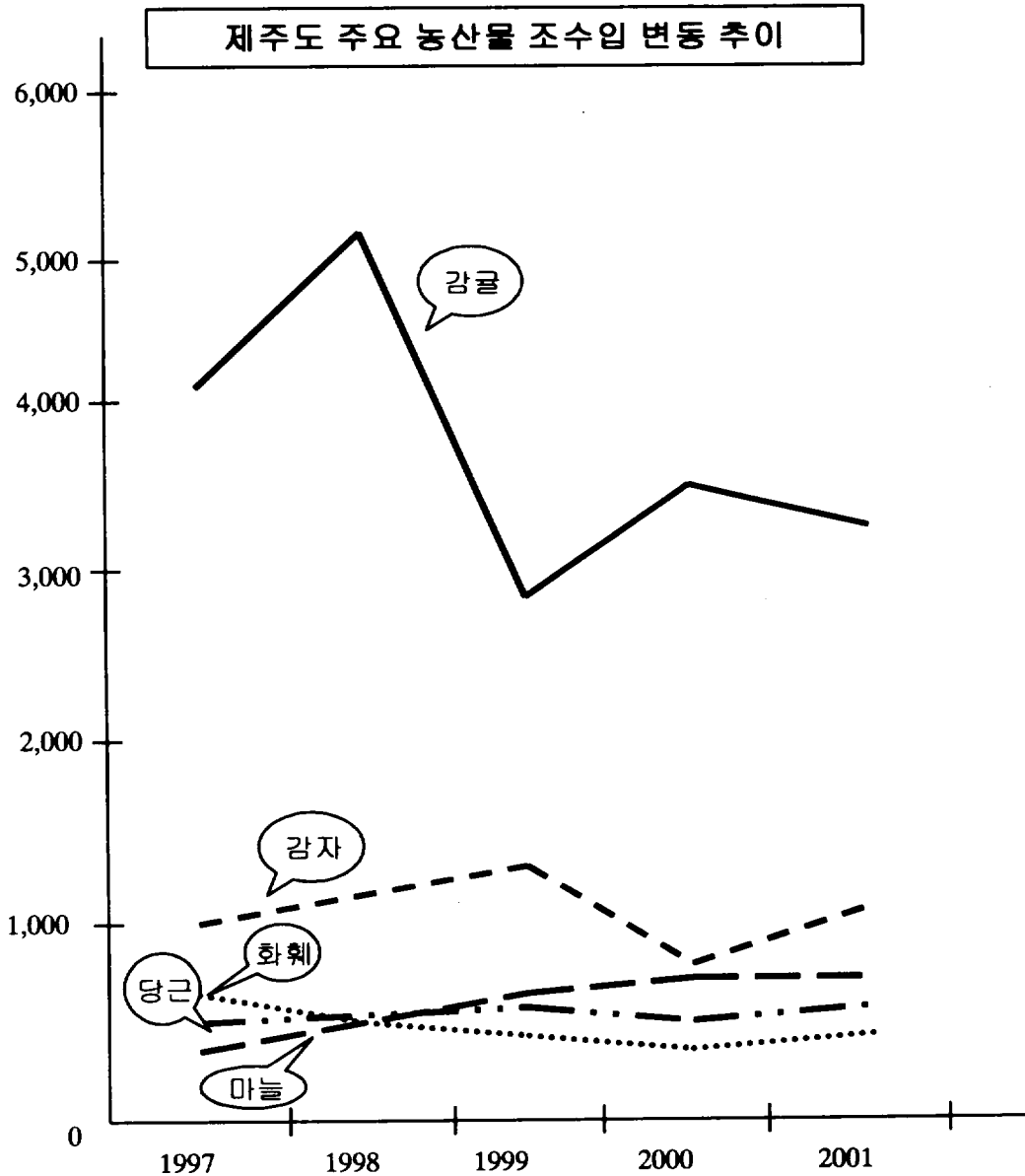
(단위 : ha)

구분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90년 대비 변화율,%)
감귤	19,414	25,802	25,781	25,860	25,823	25,796	33.0
콩	8,722	6,724	7,720	9,370	7,917	8,141	△9.2
감자	2,779	7,570	5,439	7,084	6,308	6,019	127.0
백주맥	8,890	4,719	4,344	5,122	3,984	2,852	△55.2
마늘	1,381	1,948	1,655	2,293	2,710	3,414	96.2
당근	1,814	2,153	2,174	2,767	2,608	2,617	43.8
참깨	2,792	2,017	2,044	1,518	1,263	2,320	△54.8
유채	3,789	1,519	1,370	1,097	1,195	2,177	△68.5
양배추	1,519	899	864	827	925	1,132	△39.1
고구마	3,790	1,405	774	887	848	907	△77.6
양파	238	471	674	764	797	719	234.9
화훼	245	361	363	365	458	409	86.9

주 : 1996년도 감귤재배면적이 대폭 증가된 원인은 농지세 부담 회피 목적으로 축소 신고됐던 부분이 생산조정제도의 도입(1997년)에 따른 감귤생산량 할당제의 실시로 농가 실질재배면적이 신고되어 추가된 재배면적으로 추정되며 실질적 변동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료 : 김석만(제주도농업기술원), 최근 주요작물 재배면적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2001

(그림 1) 제주도 주요농산물 조수입 변동 추이



자료 : 제주농협지역본부 · 제주감귤협동조합, 2002

Ⅲ. 제주감귤생산과 수출현황

3.1 제주감귤생산현황

제주감귤의 재배면적은 2001년도 현재 제주지역 경지면적 52,900ha의 43%인 약 25,400ha이고 제주감귤은 최근 4년간(1997~2000년)의 연 평균 약 61만 톤이 생산되어 FAO통계에 따르면 세계 연평균 1억톤(FAO집계)의 약 0.6%를 생산하고 있다.

3.1.1 제주감귤생산실태

제주감귤의 생산실태를 (표 8)에서 살펴보면 1980년도까지 연간 20만톤 미만이었는데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약 40만톤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되고 1990년대에 접어들어 50만톤을 능가하여 2001년도에는 약 65만 톤이 생산되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가격하락과 함께 감귤 처리난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8) 감귤 생산 현황

연 도 별	생 산 량(톤)	재배면적(ha)	단위생산량(톤/ha)
1980	187,470	14,094	13.3
1985	394,300	16,969	23.2
1990	492,700	19,415	25.4
1991	556,350	19,605	28.4
1992	718,700	21,727	33.1
1993	619,000	21,479	28.8
1994	548,945	21,448	25.6
1995	614,770	21,605	28.5
1996	479,980	25,802	18.6
1997	693,200	25,781	26.9
1998	543,980	25,860	21.0
1999	638,740	25,823	24.7
2000	563,341	25,796	21.8
2001	646,023	25,408	24.4

자료 : 제주농협지역본부 · 제주감귤협의회 2002

재배면적 역시 1980년도에 14,094ha였는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2만ha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말 현재 25,408ha로 80년 대비 1.8배라는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감귤의 단위당 생산량(ha당)은 과일의 격년제 해거리 현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하지는 않지만 2001년도 ha당 24.4톤이 생산되어 1980년도의 약 1.8배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품종갱신, 재배기술의 향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3.1.2 제주감귤농가의 현황

감귤재배농가는 2001년 현재 36,296호(표 9참조)로서 제주지역 전체 농가의 약 90%를 해당 하며, 감귤농업 조수익은 (표 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6년 이전까지는 매년 감귤생산량과 가격에 따라 불규칙적이었지만 1996년도 6,079억원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9) 감귤 재배 농가 실태

연 도 별	생산량(톤)	재배면적(ha)	재배농가(호)	호당생산량	호당재배면적
1980	187,470	14,094	19,996	9.4톤	0.7ha
1985	394,300	16,969	23,332	16.9	0.72
1990	492,700	19,415	25,616	19.2	0.76
1991	556,350	19,605	25,818	21.5	0.76
1992	718,700	21,727	29,541	24.3	0.74
1993	619,000	21,479	26,571	23.3	0.81
1994	548,945	21,448	26,596	20.6	0.8
1995	614,770	21,605	26,589	23.1	0.81
1996	479,980	25,802	36,055	13.3	0.72
1997	693,200	25,781	36,055	19.2	0.71
1998	543,980	25,860	36,212	15.02	0.71
1999	638,740	25,823	36,071	17.7	0.72
2000	563,341	25,796	36,590	15.4	0.71
2001	646,023	25,408	36,296	17.8	0.7

자료 : 제주농협지역본부 제주감귤협의회 2002

제주감귤농가의 호당 생산량을 살펴보면 재배농가는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인 반면 호당 생산량은 비교적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이후는 호당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이는 감귤류의 수입개방으로 농가의 재배의욕의 상실과 감귤농업의 불안감에 연유된 영농생산성의 저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감귤농가의 호당 재배면적은 약 0.7ha로서 1980년 이후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

으며 이는 호당 약 2,100평의 규모로 제주감귤이 대부분 영세정 규모이며 이는 부업농의 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영세적 부업농의 감귤생산구조는 제주감귤의 특이한 영농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영농기술의 개발이나 품질갱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표10)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 감귤재배규모 분포를 살펴보면 호당 재배 규모가 0.1-0.5ha의 농가가 51.2%, 0.6-1.0ha의 농가가 26.9%, 1.6-2.0ha의 농가가 5.4%, 2.1-3.0ha농가가 3.5%, 3ha의 농가가 겨우 1.2%에 불과하다. 이는 0.1 ha이하의 농가가 전체농가의 전체 감귤농가의 78.1%로서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주감귤농가의 영세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외국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감귤영농 구조개편 방안을 심각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주감귤영농의 구조적 영세성과 부업적 생산구조를 탈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고 과연 합리적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인 것이다.

(표 10) 감귤재배 규모별 농가 분포(2000년)

구분	계	재배규모(단위 ; ha)						
		0.1~0.5	0.6~1.0	1.1~1.5	1.6~2.0	2.1~3.0	3ha이상	
농가수(호)	36,590	18,746	9,821	4,320	3,590	1,970	1,285	448
구성비(%)	100	51.2	26.9	11.8	5.4	3.5	1.2	

자료 : 제주도

3.1.3 제주감귤 조수익의 실태

제주지역의 감귤재배면적은 2001년 현재 약 25,400ha이며 2001산 감귤생산량은 연간 약 65만톤이고, 총 조수익은 3,617억원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주감귤농업규모는 경지면적측면에서는 제주지역 총 경지면적 52,900ha의 약 43%에 해당하며 과수 생산측면에서는 최근 5년간(1997년-2000년)의 제주감귤의 연평균 약 61만 톤을 생산하여 이는 전 세계 감귤 연평균 생산량 1억톤(FAO통계)의 약 0.6%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한국의 유일한 감귤농업지역이며, 제주감귤은 한국의 과수 총 생산량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⁴⁾ 한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과수라고 할 수 있다.

제주감귤의 조수익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 545억원, 1985년 1,242억원, 1995년 4,334억원, 1996년 6,079억원, 1997년 4,009억원, 1998년 5,158억원, 1998년 5,158억원, 1999년 3,257억원, 2000년 3,708억원, 2001년산 3,617억원을 시현하고 있

4) 문두길, “제주감귤산업의 발전방향”, 「제주농업의 미래」 농업과학 심포지엄 자료, 2001. pp. 67.

다. 이러한 제주감귤 조수익은 1996년도까지 대체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 이후 부터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감귤류의 수입개방이 감귤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감귤 조수익 실태

연 도 별	생 산 량(천톤)	조수익(백만원)	재배농가(호)	호당조수익
1980	187,470	54,500	19,996	2,27,545원
1985	394,300	124,189	23,332	5,322,680
1990	492,700	315,100	25,616	12,300,905
1991	556,350	425,134	25,818	16,466,573
1992	718,700	262,330	29,541	8,880,200
1993	619,000	394,829	28,571	13,819,222
1994	548,945	552,120	26,596	20,279,512
1995	614,770	433,447	26,589	16,301,741
1996	479,980	607,932	36,055	16,861,234
1997	693,200	400,862	36,055	11,118,069
1998	543,980	515,798	36,212	14,243,593
1999	638,740	325,709	36,072	9,029,413
2000	563,341	370,811	36,590	10,134,216
2001	646,023	361,683	36,296	9,965,224

자료 : 제주농협지역본부 제주감귤협의회 2002

제주감귤생산은 증대되는 반면 제주감귤의 조수익은 감소되는 현상은 국내감귤가격을 하향 추세를 드러내는 것이며 국내가격의 하향은 대체 수입과일의 출현 등으로 제주감귤의 국내수요의 감소 추세를 입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주감귤의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주감귤에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엄숙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한편 1997~1999년 3년간의 제주감귤의 연평균 조수익이 4,141억원인 바, 이는 동일기간의 제주지역 총생산(GRP)의 9.3%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지역 1차산업 총 조수익의 32.4%,

제주지역농업 조수익의 51.5%의 비중을 보여주어 감귤농업이 제주지역의 주요한 산업임을 입증하고 있다.

3.2 제주감귤수출현황

3.2.1 제주감귤수출 실태

제주감귤은 1960년대부터 본격 재배된 이래 거의 대부분 국내 수요에 독점 생산 공급하였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귤수출이 개시되었다. 감귤수출은 1990년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 189톤을 수출한 이래, 1996년까지는 1,000톤 수준이었으나 1997년 이후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촉진지원시책, 수출단지조성 등에 힘입어 연간 수출량이 6,000톤 이상으로 급증하여 제주도 농산물 제1의 수출품목으로 정착되었다.

(표 12) 연도별 수출현황(노지감귤)

(단위: 톤)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캐나다	1,060	983	926	609	420	910	4,133	4,813	2,367	3,589
러시아	-	150	50	260	50	948	19	53	102	797
일본	-	-	-	41	46	132	1,958	1,040	2,526	54
싱가폴	-	-	-	-	-	99	-	37	21	123
홍콩	-	-	-	-	-	29	17	74	55	41
인니	-	-	-	-	-	-	42	62	69	64
괌	-	-	-	-	-	-	11	9	11	30
미국	-	-	-	-	-	-	-	377	232	1,348
기타	-	-	-	-	-	-	-	18	27	90
합계	1,060	1,133	976	910	516	2,118	6,180	6,482	5,419	6,136

자료 : 제주농업지역본부·제주감귤협의회, 2002

제주감귤의 수출지역은 캐나다, 러시아, 미국, 일본, 홍콩, 괌 등의 국가이며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마케팅 활동에 따라 시장개척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감귤의 수출지역별 수출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표 12)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90년 중반까지는 캐나다 시장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중반이후 미국의 감귤수출단지 조성과 더불어 미국시장이 개척되었고, 이와 더불어 일본시장이 중요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3.2.2 제주감귤의 수출비중

제주감귤의 수출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시되어 1994년도 제주감귤수출단지가 지정, 육성되면서 미국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출이 검토되었다고 하겠다. 1995년도 제주감귤 242톤이 수출되면서 미국은 제주감귤의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대두되었으며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소량이지만 감귤수출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제주감귤의 對동남아 지역 수출은 1990년대 초부터 개시되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중국산 감귤의 출현으로 제주감귤의 수출이 둔화되었으나 1998년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아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제주감귤분류상 大果를 선호하고 있어서 제주감귤의 대과의 수요처로서 적극적으로 개척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동남아지역은 大果감귤의 잠재적 수출시장인 것이다.

제주감귤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을 (표 13)에서 살펴보면 1997년 이전에는 제주감귤 총 생산량의 0.5% 미만이었으나, 1998년 이후 그 비중이 1%를 초과하고 있다. 감귤수출액의 조수입에 대한 비중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감귤의 조수익이 급감함에 1999년 이후 2.6%를 시현하고 있다.

(표 13) 감귤수출 비중

연도	수량 기준(톤)			금액 기준(백만원)		
	생산량	수출량	수출비중(%)	조수입	수출액	수출비율(%)
1995	624,770	1,121	0.18	433,447	1,069	0.25
1996	479,980	744	0.16	607,932	927	0.15
1997	663,200	3,413	0.49	400,862	3,628	0.91
1998	543,980	6,277	1.15	515,798	6,403	1.24
1999	638,740	6,524	1.02	325,709	8,417	2.58
2000	563,341	6,663	1.18	370,811	9,564	2.58

자료 : 제주도

3.2.3 제주감귤수출단지의 수출실태

제주감귤수출단지의 수출실적을 (표 14)에서 살펴보면, 1995년 242톤, 1996년 214톤, 1997년 1,270톤, 1998년 497톤, 1999년 858톤, 2000년 264톤, 2001년 1,497톤으로서 감귤생산량의 5.0%, 4.4%, 26.2%, 10.3%, 17.7%, 5.5%, 30.9%가 각각 수출되었다. 제주감귤수출단지의 지난 7년간 (1995-2001년) 총 수출량은 4,942톤으로서 연간 총 감귤생산 정도에 불과하다. 수출단지별 생

산량 대비 수출비중을 상론하면 해안과 상가지역은 최근 50%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상예, 청수, 안성지역은 20%미만을 시현하고 있다. 총 1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감귤수출단지는 생산유통사업의 일환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 육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감귤수출의 첨병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감귤수출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감귤농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 감귤수출단지내의 생산농가는 감귤수출에 대한 의무감과 함께 사명감을 제고시키는 현실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 제주감귤수출단지별 생산량과 대미수출량

단지	생산 능력 (톤)	수출실적(톤)								생산량중 수출비중(%)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해안	550	154	111	272	234	288	106	291	1,456	28.0	20.2	49.5	42.5	52.4	19.3	52.9
상예	870	-	14	141	151	72	99	63	540	0.0	1.6	16.2	17.4	8.3	11.4	7.2
청수	800	-	27	109	46	-	23	86	291	0.0	3.4	13.6	5.8	0.0	2.9	10.8
상가	830	-	-	219	44	475	97	488	1,323	0.0	0.0	26.4	5.3	57.2	11.7	58.8
의귀	950	88	22	232	-	-	39	413	794	9.3	2.3	24.4	0.0	0.0	4.1	43.5
안성	840	-	40	297	22	23	-	156	538	0.0	4.8	35.4	2.6	2.7	0.0	18.6
계	4,840	242	214	1,270	497	858	364	1,497	4,942	5.0	4.4	26.2	10.3	17.7	7.5	30.9

자료 : 제주도

3.2.4 제주감귤수출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감귤생산은 농가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원으로서의 감귤농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감귤수출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의 경제가 세계적 경제로 발전되고 있는 동안 제주 감귤을 국내시장 지향적 감귤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감귤의 수출상품화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함으로써 개방화 시대에 제주감귤농업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나마 감귤수출이 시현되고 감귤이 수출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타진되었고 급기야는 대미감귤수출단지를 조성하고 감귤수출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감귤 연간 총생산량 가운데 약 1%정도의 감귤수출실적을 근거로 문제점을 논술한다는 것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상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감귤수출에 대한 확고한 수출전략의 부재이다.

제주감귤은 그동안 국내독점생산체제에서 국내시장수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내상품일 뿐이었다. 이로 인하여 감귤수출에 대한 전략 구상은 거의 전무하였고 농업개방의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감귤수출전략에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둘째, 감귤수출실적이 영세하고 감귤수출이 대부분 농협 등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거래는 외국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서 공공기관적 조합에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무역거래에 한정하게 되며 이로 인해 소극적인 수출활동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수출이 무역주체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상거래 활동이라하고 한다면 적극적인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처 물색,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 성공적 무역거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바 공공적 기관에서는 속성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감귤수출은 실적면에서 부진한 상태에 탈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감귤수출지역이 미국, 캐나다 등 몇 개국에 한정되어 있다.

제주감귤수출실적이 영세성에 탈피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출지역도 10개국 정도에 불과하여 감귤수출시장조사에 대한 적극성이 요구되고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수출활동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시장조사는 현재 수출업체의 영세성 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농정당국의 적극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주감귤민간수출업체와 수출지원책의 부재이다.

감귤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주감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야 필요가 있는데 과감한 수출지원책이 부재함으로서 제주감귤수출에 대한 민간 무역업체의 관심이 미약하고 이로 인하여 감귤수출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에 제주감귤수출에 대한 개략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제주감귤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전략을 거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V. 제주감귤 수출진흥전략

제주감귤농업은 제주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지렛대이다. 약 40 여년간 키워온 작물을 단순한 농가소득원 정도로 간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제주감귤은 단순한 소득원일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작물에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비교우위 작물이며 제주지역경제의 지렛

대 역할을 하고 있는 작물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감귤농업의 육성 발전없이 는 제주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감귤농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감귤농업은 반드시 또다른 비교우위산업을 특별히 제주지역에 유치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하겠다. 제주감귤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감귤수요의 창출이며 이러한 감귤수요창출은 해외시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제주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할 수 있겠으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주감귤의 해외수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소극적인 감귤수출에 머물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부인하기가 어렵다. 특히 감귤의 수출정책, 수출기반, 수출지원사업 그리고 대외협력 면에 있어서 안일하고 소극적 접근으로 일괄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연간 약 65만 톤의 감귤생산량 가운데 겨우 6000여 톤에 불과한 수출실적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감귤농업이 진실로 생명산업이라고 간주한다면 제주감귤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감귤수출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이에 따른 거시적 측면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감귤수출드라이브 정책 추진

감귤수출드라이브정책이란 감귤수출 진흥을 위하여 금융적, 행정적, 세제측면에서 우위적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업체로 하여금 수출의욕을 고취시켜 수출활동을 촉진하는 수출장려정책을 의미한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경제개발 초기에 대외개방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급속한 국가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지역은 지난 40여년간 중앙정부의 대외개방정책과는 다른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은 극히 미미한 지역으로 전략하게 되었다. 하지만 WTO시대가 개막되고 국제자유도시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감귤생산과잉이 발생됨에 따라 감귤수출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감귤수출의 진흥을 위해서는 감귤수출드라이브정책이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귤수출드라이브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감귤수요창출과 감귤농가의 생존 그리고 제주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1.1 감귤수출드라이브 정책은 감귤수요창출 전략이다.

제주지역의 감귤농업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하여 제주농가의 제1의 조수의 작물로 정착되었다. 또한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주지역경제의 주요한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일명 감귤농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감귤농업은

2001년도에 조수익 약 3,620억을 실현하여 제주지역경제의 약 9%를 점하고 있어서 감귤농업은 제주지역경제 있어서 중요한 분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감귤을 대체작물이 아직 미미한 상태에서 감귤감산정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게 된다. 감귤열매따기, 감귤원 폐원, 휴식년제 등 생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감귤 대체과일의 출현증대, 오렌지 및 원액의 수입증가 등으로 감귤류 공급과잉현상이 발생되고 감귤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농정에 대한 불신감만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귤감산정책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와 함께 감귤의 수요확대 측면에서 감귤의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감귤의 국내수요는 감귤국내도매시장경락가격을 감안해 볼 때 연간 약 40-50만 톤 정도로 추정되며 과일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감귤공급과잉 해소방안은 감귤해외수출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2001년도 감귤의 해외수출의 감귤총생산량의 약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미미한 감귤수출을 과감히 증대시킬 수 있는 감귤수출드라이브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감귤의 해외수요를 창출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제주지역 농업의 세계화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4.1.2 감귤수출드라이브 정책은 WTO 시대의 생존전략이다.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대국인 중국이 WTO체제에 편입됨으로서 세계경제는 본격적인 WTO시대에 접어들어 특히 세계농산물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⁵⁾되고 있다.

즉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와 중국의 자국농산물에 최혜국(MFN) 대우를 인정을 요구 등 공정한 시장접근의 시도하게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중국산 농산물의 가격우위성 등으로 농산물 수입선을 중국으로의 전환 현상이 심화되어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제주농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산감귤의 수입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감귤품종의 갱신, 재배기술의 개선 등을 도모하고 우수한 품질의 네블 오렌지계통(지청)의 재배면적을 확대되고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산 감귤의 수출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산 감귤이 한국의 도매시장에 출하될 경우, 출하가격은 현행 관세(147.2%)를 적용할 때 국내 도매가격의 75% 수준이며, 관세를 30% 감축할 경우 국내 도매가격의 63% 수준으로 추정⁶⁾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산 감귤의 가격경쟁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식물방역법상의 장벽(귤과실파리, 오이과실파리, 잎말이나방 등 병충해)으로 인하여 수입되지 않고 있다.⁷⁾

5) 임정빈·이재욱, 전게서, pp. 13~14.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귤·단감·포도·복숭아의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02」, 2002.

7) 제주도, 전게서, pp. 16.

하지만 중국산 감귤은 제주감귤농업의 큰 위협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 감귤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더욱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중국산 농산물등 농업의 개방화 흐름에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진취적 공격전략으로서 제주감귤수출드라이브 정책은 WTO시대의 농업생존전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표 15) 중국산 감귤의 국내도매시장 출하 평균가격 산정

구 분	중국산 수출가격		국내도매시장 출하 가능가격				국내도매가격	대비 (A/B)
	\$/kg	원/kg	수입가격	관세	제 비용 이윤 등	소계(A)		
현행관세 적용시	0.126	169	218	321	164	702	933	75%
관세 30% 적용시	0.126	169	218	225	149	592	933	63%

주 : 중국 수출가격은 1999~2001년 11월 평균임. 환율은 1,300원/kg을 적용. 수입가격은 중국의 수출가격에 해상운송비(680\$/냉동컨테이너: 40Lbs*1천상자 포함)를 합함. 현행관세는 147.2%임. 제 비용은 통관·하역·내륙운송 등으로 1,500원/Lbs를 산정했음. 이윤은 상장수수료 5%, 수입업자 이윤 10%를 적용. 국내 도매가격은 서울 가락시장 1999~2001년산 상품가격 기준.

4.1.2 감귤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제주감귤 보호전략이다.

제주감귤수출이 연간 감귤 총 생산량의 약 1%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감귤의 세계 상품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미흡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독점적 감귤생산체제의 유지와 농업보호정책의 지속으로 농업의 개방화의 흐름에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되어진다.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쳐 WTO체제가 정착되면서 FTA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감귤수출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감귤수출은 농정당국이나 수출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지역경제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귤수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농가의 생존필수 사항이라는 것이다. 사실 감귤이 생명산업이라고 한다면 현실적 생존전략이 무엇일까? 감귤의 생존전략은 궁극적으로 감귤수요의 확대이며 국내수요의 한계성에 비추어 볼 때 감귤수요확대는 해외수출의 증대이며 감귤해외수출은 감귤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의해 강력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 1960년대 초부터 한국은 국제무역의 이익⁸⁾이론에 근거하여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지속적으로 채택, 시행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만큼 한국이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전쟁의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제주감귤농가 뿐 만 아니라 감귤관련기관에서는 감귤

8) Miltiades Chachcuades,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Policy, MacGraw-Hill, Inc. 1978, pp.416-438

농업의 궁극적 생존의 전략은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감귤 수출진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감귤농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해서는 감귤수출을 제주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하여 감귤수출드라이브정책을 조속히 수립,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감귤수출드라이브정책은 제주감귤의 보호전략이며 감귤농가의 생존전략이다.

4.2 감귤전문수출업체의 육성

제주감귤수출은 총생산량의 1%정도에 불과하다. 사실상 감귤수출이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약 6,000여톤의 감귤수출도 농협과 감협 그리고 (주)제주교역 등 공익적 단체에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이란 모름지기 개별경제적인 성격과 국민경제적인 성격, 세계경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해상의존성, 기업위험성, 산업연관성, 국제관습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⁹⁾. 이러한 무역의 성격과 특성상 공기업적 기관에서 수출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곤란 것이다. 더구나 감귤공급과잉상태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전략이 요구되고 공격적 감귤수출마케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 있어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조합에 의해 감귤수출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감귤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감귤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순수 민간 감귤전문수출업체를 적극 육성하여 제주감귤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들 감귤전문수출업체들의 공격적 감귤수출마케팅을 통해 감귤의 세계화를 선도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공익적 기관이 아닌 감귤농가 또는 일반무역업체들이 감귤수출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과감한 감귤수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기업적 성격도 있지만 공익성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과중한 무역거래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 자세에서 탈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철저한 수익성과 효율성을 기초로 감귤수출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특히 치열한 글로벌경쟁 속에 감귤농업의 생존을 위한 국제시장에서의 활동은 감귤수출전문업체의 육성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복잡하고 미묘한 무역계약의 특성¹⁰⁾상 거래는 국내상거래와 달리 많은 위험(Risks)이 수반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공익적 기관에서 평탄하게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따라서 순수 민간 감귤전문수출업체를 적극 육성하여 감귤수출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감귤의 수출에는 많은 물류비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접근이 쉽지 않겠지만 감귤수출 지원책과 강력한 감귤수출인센티브제를 도입, 실시함으

9) 이동호·박중수·강경훈, 신무역학개론, 도서출판 두남, 1999. 8. 10. pp.18-23

10) 이용근, 무역계약론, 법문사, 1997. 3. 5. pp. 93-96

로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함으로서 감귤수출업체 자신이 자기 위험부담하에 수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의 문제는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감상적이거나 미온적 술책으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제주감귤의 문제는 무조건적인 생산이나 감귤농가소득의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감귤수출 비즈니스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에 의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된다. 만일 이러한 감귤수출전략이 효험이 없다면 제주감귤농업의 운명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감귤의 생존의 길은 수출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감귤수출드라이브전략이 감귤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정당국이나 농협 등 농가의 공익단체는 비즈니스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감귤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KOTRA 해외무역관, 영사관, 해외교포단체 등과 감귤수출협력Network을 구축하여 제주감귤의 홍보와 해외시장개척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주)제주교역을 제주지역수출지원기관으로 개편하여 제주지역 수출의 첨병으로서 감귤전문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KOTRA 제주무역관의 설치가 바람직하지만 선행적으로 (주)제주교역을 개편하여 제주지역의 KOTRA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해외교포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외적인 감귤의 수출협력Network을 구축하여 감귤의 관계마케팅을 강화해야 하여 해외시장조사와 개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결과적으로 감귤수출을 진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농정당국의 과감한 인식전환과 함께 조속한 조치가 요구되어진다.

4.3 감귤브랜드개발 지원강화

제주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감귤브랜드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표 16)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감귤농가에서 “블로초, 굴림원, 곱들락” 등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판매촉진에 효과를 보고 있는 바 국내가격 면에서 브랜드감귤이 일반감귤보다 평균 약 35%정도의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어서 감귤농가의 수익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청정지역으로서 청정이미지를 감귤브랜드와 함께 제고시킬 수 있다면 제주농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브랜드화는 필수적 요소라 하겠다. 제주지역의 농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축산물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소비자들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제주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가미하여 감귤브랜드 개발에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미 제주지역 단위농협의 일부에서 감귤브랜드를 개발하여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브랜드감귤의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견주어 볼 때 감귤

의 브랜드화는 감귤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2월드컵 경기로 인하여 한국상품의 이미지가 상승한 것처럼 제주의 청정이미지는 제주감귤의 국제가격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감귤농가의 농가별 재배면적을 보면 1 ha미만의 농가가 약 80%에 이르러 영세한 감귤농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의 감귤농업에 있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귤의 브랜드화는 농가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의 감귤농가로 하여금 브랜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브랜드교육을 강화 시행하고 브랜드개발에 지원을 강화한다면 제주감귤수출을 진흥시킬 뿐만 아니라 감귤수익의 극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표 16) 브랜드 감귤과 일반감귤의 가격 비교 (단위: 원/15kg)

조합명	브랜드명	경 락 가 격		
		브랜드감귤	일반감귤	가격차이
제 주 감 협	블로초와 귤립원	15,642	10,071	5,571(55.3%)
남 원 단 협	곶들락	11,565	9,200	2,365(25.7%)
서귀포 단협	청정오름	11,880	9,800	2,080(21.2%)
평	균	13,029	9,690	3,339(34.5%)

자료 : 제주농협지역본부 · 제주감귤협의회, 2002

4.4 감귤수출기반 확충

4.2.1 감귤수출기반의 확충

제주감귤의 수출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대미감귤수출단지가 유일하다고 하겠다. 제주지역의 감귤수출단지는 1994년 한미수출협정서(Work Plan)에 의해 কে양병 무병지역으로서 수확전후및 포장시 한미 합동검사와 미국 도착시 미연방식품의약국(FDA)의 최종 검역 통관조건의 감귤집단 격리재배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성 육성되었다. 이러한 제주감귤수출단지는 제주감귤의 대미수출을 모색하기 위해 1994년 감귤생산유통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1994년 1개소, 1995년 1

개소, 1996년 2개소, 1997년 2개소 등 1997년까지 총 6개소가 지정, 육성되고 있다. 현재,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 북제주군 2개소, 남제주군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감귤단지(6개소)의 총 재배면적은 234ha로서 제주지역 총 감귤재배면적 25,796ha의 약 0.91%이며, 감귤수출단지내의 농가 수는 286호로서 전체 감귤재배 농가수 36,590호의 약 0.78%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단지별 재배면적은 27-56ha이며, 수출단지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0.81ha정도의 규모가 영세하고, 감귤수출단지의 연간생산능력은 4,80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감귤수출단지로서는 감귤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감귤수출드라이브정책의 추진에 맞추어 감귤수출진흥을 위해서 감귤수출단지를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감귤수출단지를 확충하여 수출감귤의 품질 관리 및 분류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출감귤의 원가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7) 대미 감귤수출단지 현황

지역	단지명	면적(ha)	농가수(호)	연간생산능력(톤)	사업비(백만원)	지정연도
제주시	해안동	27	44	550	2,689	1995(중앙)
	상예동	28	53	870	1,640	1996(중앙)
서귀포시	청수리	37	24	800	2,102	1997(중앙)
	상가리	49	61	830	1,305	1997(지방)
북제주군	의귀리	56	55	950	2,323	1994(중앙)
	안성리	37	49	840	1,675	1996(지방)
계	6개소	234	286	4,840	11,724	

자료 : 제주도

4.2.2 감귤수출전용선과장의 설치

제주감귤의 수출을 본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감귤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감귤수출전용 선과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감귤에 수출에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감귤수출전용선과장을 설치함으로써 수출감귤의 분류와 포장 등에 있어서 시간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수출감귤의 관리와 자발적 품질검사 등을 일괄할 수 있어서 제주수출감귤의 대외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감귤의 과잉생산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감귤수출이 연간 약 6,000여톤에 불과하다는 것은 수출전략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귤수출기반의 열악성은 당연한 결과이다. 감귤수출의 증진을 위해서는 국제마케팅철학¹¹⁾을 감귤수출에 적용, 분석이 필요하지만 감귤수출전용 선과장의 설치 등

감귤수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겠다. 이외에도 감귤수출기반시설로서 감귤수출의 확대 지정, 감귤냉동컨테이너의 제작과 야적장의 설치 등 감귤수출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감귤수출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감귤수출의 증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WTO시대의 도래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통상분야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WTO시대는 사실상 전 산업의 무한경쟁체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대응방안 모색은 농업의 생존에 필수적 요인이라고 하겠다. 특히 제주지역은 농업의 비중이 국내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통상정책의 강화는 제주농업의 생존과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WTO시대의 도래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세체제의 정비, 특별긴급구제체도의 활용, 원산지표시체도의 보완 등 정책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¹²⁾ 하겠지만 각 지역별로 독특한 무역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진흥의 의한 농가 보호와 농업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우렁찬 고동이 울렸다. 4년여의 산고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내국인 면세점이 개점되고 제주지역이 세계화의 물결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면서 제주감귤에 빨간 불이 확연히 켜졌다. 감귤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제주농정당국의 노심초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제주경제미레가 불안하다. 제주감귤전략에 대해 일대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사이버무역의 특징¹³⁾을 활용하여 제주감귤의 해외수출을 증대시킴으로서 제주의 불안감을 불식해야 하지 않을까? “공격이 최대의 방어전략”이라는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감귤의 적정가격유지를 위해서 총생산조정정책이 아니라 감귤의 총수요확대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공산품의 생산조정도 제반 여건상 난감한 것인데 자연의 산물인 감귤의 생산조정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감귤따기, 감귤휴식년제, 감귤원 폐원 등 감귤감산정책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면서도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감귤생산조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란 근원적으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다. 생산은 생산자의 몫이며 소비는 소비자의 몫이다.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을 통해서만 생산자를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업도 하나의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농정당국이 생산

11) Vern Terpstra, International Marketing, CBS College Publishing, 1983, pp.157-175

12) 임정빈·이재욱, 전제서, pp. 18~21.

13) 백주환, 천세화 공저, 디지털경제와 e-비즈니스, 도서출판 두남 간, 2001, pp.284-286

방식까지 간섭하는 것은 비경제적 논리일 뿐이다. 특히 중국농산물의 출현과 감귤대체작물이 열악한 현실에서 감산 일변도의 감귤정책은 제주농가의 불안을 초래하고 농정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시킬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정보화의 열기 속에 농가정보력이 엄청나게 증대된 현실에서 행정 주도적 감귤생산조정정책은 한계성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 업적주의를 심화시킬 뿐이다. 적정가격유지를 위해서 감귤감산정책도 중요하지만 감귤수요창출을 위한 전 방위적 전략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제주감귤에 대한 국내수요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수입과일의 증가로 감귤의 국내수요증대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WTO시대로 접어든 21세기는 경쟁적인 글로벌 소비자시대이다. 글로벌 소비자시대는 어떠한 상품이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란 글로벌 소비자의 선호도에 비례한다고 하겠다. 소비자의 선택에서 제외되는 상품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냉혹한 흐름에서 제주감귤의 생존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적극 접근하는 감귤발전전략이다. 생산자는 저렴하고 고품질의 감귤 생산을 위해 감귤영농의 합리화에 주력하고 농정당국은 감귤수요증진을 위해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주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약 20억의 인구는 제주감귤의 잠재적 수요층을 형성하고있다. 물론 농산물시장의 개방화의 흐름에 따라 제주감귤의 장기적 발전과제에 관해서는 더욱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감귤의 국내수요량이 40-50만 톤 정도라고 산정해 볼 때 과잉생산량 20-30만톤은 해외시장이나 다른 수요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생산독점인 제주감귤 총 생산량의 겨우 1%정도 해외 수출될 뿐이다.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의 전략을 제주감귤발전에 벤치마킹하여 한라의 기적을 창조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제주지역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감귤은 제주지역의 생명산업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제주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첫째 감귤수출드라이브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둘째 수출전용 선과장의 설치와 감귤수출단지의 확대, 등 감귤의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셋째 감귤브랜드 지원의 강화하여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넷째 감귤전문수출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특히 사이버 감귤무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감귤수출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KOTRA 해외무역관, 해외교포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감귤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감귤농업이 제주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귤수출증진 위한 정책개발에 과감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선, 제주감귤의 발전정책,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2. 8. 31.
- 강태구, 사이버 수출마케팅, 무역경영사, 2001. 9. 5.
- 백주현, 천세학, 디지털경제와 e-비즈니스, 도서출판 두남 2001. 1.10.
- 이동호, 박종수, 강경훈, 신무역개론, 도서출판 두남, 1999, 8.10
- 이용근, 무역계약론, 법문사, 1997. 3. 5.
- 신태곤, 한국경제론, 법문사, 2001. 2. 15.
- 홍기용, 지역경제론, 박영사, 1999. 8. 30
- 문두길, 제주감귤산업의 발전방향, 제주도의회·제주대 농업생명대학 주최, 제주농업의 미래, 세미나, 2001. 12.
- 유영봉, 제주농업의 특성 변화와 발전방향, 제주업의 미래, 농업과학 심포지엄, 2001.
- 임정빈·이재옥,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국내외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9.
- 임정빈, 어명근, 김태곤, 정정길,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 제주발전연구원, 감귤의 산업구조분석과 관광자원적 가치평가, 2001. 12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제42회), 2002
- 제주도, 21C 제주농업의 도전과 비전, 2002.
- 제주농협지역본부·제주감귤협의회, 2001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2002. 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2.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감귤원예, 2002. 11·12월
- 제주상공회의소(2001), 제주경제현황.
- 한국은행 제주지점, “WTO체제하의 제주농업 발전방향” 2001. 11.
- 뉴라운드 제주도대책협의회. “WTO 뉴라운드협상 대비 제주의 기본대응방안”, 2001.
- 日本農業市場學會, 農産物貿易と アグリビジネス, 1996. 9. 30.
- Mitiades Chacholiades,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Policy, McGraw-Hill, Inc. 1978
- Vern Terpstra, International Marketing, CBS College Publishing, 1983
-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The Free Press A Division of Macmillan, Inc., 1990
- Paul W. Beamish·J. Peter Killing·Donald J. Lecraw·Harold Crookell, International Management, Richard D. Irwin, Inc., 1991
- FAO,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 Resource Manual, 2000.
- OECD, Change in China's Agricultural Trade Policy Regime : Impact on Agricultural Production, Consumption, Prices, and Trade, Committee for Agriculture, CCNM/CHINA/CA, 2000.